

Cleveland



2012년 7월 10일 여름호 통권 제 88호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지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NEWSLETTER



President: Bon Chul Koo (440) 446-9298

Secretary General: Kee Do La (440) 542-1498

Treasurer: O Kap Kwon (330) 656-3050

KPNU MS Alumni Assoc.

39870 Alsace Ct.

Solon, OH 44139

-애송시-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엔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주렴



17번의 옥살이를 거친, 실로 짧은 40년의 생애를 파란만장하게 보냈던 이육사님을 생각 해 보면서 '청포도' 올려 봅니다. -편집인-

-회장 인사말-

개척자의 정신으로

2012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회장 구 본 철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동창회원 및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반백년 동창회 역사를 통해 동문님들께서 개척 정신으로 이루신 업적들이 괄목할 만큼 미주사회에서 큰 뿌리를 내려 우리 경북의대의 위력과 우수함을 들어내고 또 모교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니 2012년 회장직을 맡은 저로서도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미주 동창회를 위하여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모교와 모교부속 병원의 발전을 위해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며 봉사하고 계시는 변영우 동창회장님,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님, 채성철 경북의대 원장님과 백운이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께 건투를 빌며 올해 Convention에서 상봉할 것을 기대합니다.

총무 나기도 동문을 위시한 임원진, 각 Committee Chairs, 특별히 Historian으로 수고하시면서 항상 여러가지로 도와주시는 여용연 선배님 그리고 매년 동창회와 후배를 위한 장학기금 뿐 아니라 Special Donation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동창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모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Cleveland 근교인 Quail Hollow Resort and Country Club에서 8월 16일부터 19일 까지 개최되는 Annual Convention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를 다시 한번 더 빛내주시고 또 즐거운 해후가 되시고 회포를 함께 푸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목차)	
인사말 _____	회장, 구 본 철 _____ (3)
Delegate Meeting 보고 _____	총무, 나 기도 _____ (4)
Treasurer Report _____	재무, 권 오 갑 _____ (5)
News _____	Chicago, Class of 67 _____ (6)
News 화보 _____	Florida _____ (7)
애창가곡, 가고파 _____	Helen Yoon _____ (8)
수필, 소리 _____	김 용 언 _____ (9)
시, 늘푸른 나무 _____	이 상 준 _____ (10)
동창회비 납부 현황 _____	재무, 권 오 갑 _____ (11, 12)
Annual Convention Schedule _____	_____ (13)
Annual Convention Registration Form _____	_____ (14)
Delegate Meeting 사진 화보 _____	_____ (15, 16)

Minute of Delegate Meeting,

Saturday, May 12, 2012

Quail Hollow Resort Hotel

총무, 나 기도

오후 7시 10 분 구분철 동창회장 개회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2011년 Delegate Mtg. 회의록을 개개인 들이 일별한 후 별 의의가 없음을 표명한 후 이재욱 동문의 동의와 정병하 동문의 재창, 그리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보고 사항:

2011년 회계보고: 박대선 전 재무 대신 권오갑 2012년 재무가 보고, 그리고 김수용 감사의 서면으로 전해온 감사보고를 낭독, 별 의의 사항이 없음을 알린 후 그대로 받기로 이상준 동문의 동의와 신철야 동문의 재창 그리고 다른 의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보고에서 누락된 동문: 컴퓨터 의한 편집 오류로 작년 가을 호 회지에 66년 클래스 정해진 동문의 동창회비 100불과 장학회비 100불이 빠졌음을 이상준 동문이 언급했다.

김수용 동문이 감사직으로부터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2012년 감사로 강백현 동문이 김영철 동문과 함께 수고하기로 결정하다.

Historian 여웅연 동문: 지난 예를 통해 보건데 몇 해 전 New York과 올해 California예를 들어서 “대의원 구조에 대한 Concept를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즉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회장을 보좌해서 일할 총무의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장자리를 거절하는 일이 많으므로 총무 없는 회장 선출을 고려해봄이 타당할 것으로 안다.” 이 점을 모두 동의하였다.

By-Laws 신철야 동문의 위의 사항에 따른 소견을 언급: “총무를 꼭 회장과 더불어 선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겠다.”

Membership 담당 김영철: “미망인 동문들의 개개인의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검토를 해보겠다. 동기별 책임자를 통해 은퇴 및 이사한 동문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다.”

Newsletter 이상준 동문: 원고를 내어 온 동문이 아직 없으며 ‘각 클래스 별 그리고 각 지역별 동문들의 소식을 수집하는 일에 힘을 써서 소식란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재욱 동문의 견해에 적극 동감을 표하였다.

CME담당 이재욱 동문: 4명의 강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하재덕 동문, 한국에서 한국 의료보험 심사 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정영식(66) 동문, 한창수(Harvest Financial) 선생 그리고 Science Lecture Sponsor를 조남제 동문이 주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Scholarship 담당 육정혜 동문: 모교에 기증한 66년도 동기들의 선물인 박물관 산텔리아와 그 외 김종구 선배님 이하 여러 동문님들이 기증한 골동품의료기구 등이 많은 빛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골동품 수집은 계속하고 있으니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동창회 장학 기금으로 회장 구분철 동문이 \$3000을 내어놓았다.

각 지부 Committee Chairman으로 CA: 이종술 동문(55), PA: 박내홍(66), IL: 이영화(65) 동문이 수고하는 것으로 밝혔다. 동기별 회장도 빨리 알아서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Golf outing 담당 정병하 동문: 적어도 80명 이상의 골퍼들이 확보되면 Shot-Gun이 허용되기 때문에 골퍼들 확보에 노력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번 골프 시상도 예년처럼 Galloway System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의결 사항:

“동창회 기금 중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회장 권위로 \$10,000까지 동창회 Meeting을 위하여 쓸 수 있음.”을 여웅연 동문의 동의 권기호 동문의 재창으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다음 Delegate Meeting은 8월 16일(목) 6시 30분 Quail Hollow Resort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고 오후 8시 45분에 폐회하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FINANCIAL REPORT
(AS OF MAY 10, 2012)**

By Dr. Okap Kwon, Treasurer

GENERAL FUNDS

INCOME

Balance Forward	\$29,353.14
Dues For 2012	\$10,600.00

EXPENSES

Committee Meeting	\$207.00
Stationary and Printing	\$618.21
Letters, Labs and Stamps	\$205.20
Clerical Fee	\$200.00
Band Deposit	\$1,000.00
Check and Stamps	\$58.00

Balance	\$37,664.73
---------	-------------

SCHOLASHIP FUNDS

INCOME

Contribution For 2012	\$10,300.00
Special Contribution	\$1,200.00

Balance	\$11,500.00
---------	-------------

원고 모집

2012년 가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수필, 기행문, 짧은 논문, 생활 속에서의 수기 등등....

9월 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e2266@roadrunner.com>, or <samuelllee77@msn.com>



편집후기: 컴퓨터를 하다 말고 뜰에 내려갔더니 우연히 네잎클로바를 발견, 아내에게 선사했더니 와-하고 지르는 함성과, 행운을 만났다는 화안한 표정, 그 있을 자기의 성격책에 꽂아 두었다. 매일 한개씩 무려 아홉개 수집, 그렇게 하면서 편집은 끝이 났다.

<Window-7>이 말을 잘 들어주길 빌면서 출판에 부쳤다. 이번에는 오류가 없어야 할 텐데, 지난 번에 동창회비와 장학금 명단에서 컴퓨터를 미숙하게 다루었던 탓으로 탈락되어 버린 67년 정해진 동문에게 죄송함을 느낀다.

매추리가 알을 까고 보리타작이 한창인 Quail Hollow Golf Resort에서 만나 떠들고 싶어지는 총회 2개월 전, 동문들의 즐거운모습들이 기대된다. 다음호를 위해서 원고 하나씩 꼭 쓰시기 바랍니다. 소식들도 전해주시고요.....(이)



소 식 란 NEWS....

시카고 지역 소식

김 성 원(67) 보고

회장; Dr. 이 영 화 ,
사무총장; Dr. 김 성 원 각 동기 대표 명단; 존칭 생략

- 64년 이상; 이 영 식
- 65년; 이 수 광
- 66년; 고 충 환, 최 성 정 (골프 Chair.)
- 67년; 정 태수
- 68년- 71 년; 신 기동
- 72년 이하; 정 영 섭

- 1) 4월 14일 (토요일) 에 delegate meeting 을 가졌음.
- 2) 6월 23일 (토요일) 에 Golf Tournament을 Midlane Golf resort, Wadsworth, Il.60083 에서 가질 예정임.
- 3) 10월 경에 Lake Geneva, Wis.에 단풍놀이를 계획 중임.

Class of 67: Costa Rica 나들이 2011년 1월 15일: Photo by도연섭



특별강사 초청: 정영식 동문 (66)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발표-

66년에 경북의대를 졸업한 후 병리학 석사과정(경북의대), 생리학 박사과정(한양의대)을 이수한 후 영남 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전수한 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동의료원에서 부과장 역임, 정영식 산부인과를 개업하면서 계명의대와 한양의대 외래강사 겸임, 효성 여성 병원 의무원장을 역임, 현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및 진료 심사 평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Chairman, Health Care Review and Assessment Committe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이 일과 아울러 정영식 동문은 국제 와이즈맨 한국 협의회 의장, 동 이사장, 한국 유전자 검사 평가원 이사, 사랑의 열매 모금 이사, 아름다운 공동체 고문, 그외 의료 선교 를 통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Class of 67 졸업 제 45주년을 맞아 은 또 이번 2012년 10월에 고국 방문을 하여 동기회 겸 남해와 제주도를 관광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참가예정자: 김광준 , 김영철, 김성원, 김승조, 김영길, 노여주, 도연섭, 박대원, 박순호, 육정자, 이상욱 이상준, 정수진, 정태수, 최임석 한국에서 참가예정자: 도종웅, 문행자, 오석배, 김대조, 지창준, 김무현, 김영희, 박동술, 박영남, 이원순, 장병희, 김용언, 고운표, 변승령, 송남원, 최유근,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

FLORIDA - 사진으로 본다



Victoria Cruise에서..... 한 걸 씩



- 애창가곡-

Helen Yoon (Mrs. 윤동수 '71) 해설

가 고 파

작사: 이은상 작곡: 김동진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 파라 가고파
 어릴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살게 되었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 갈까 돌~아가
 가서, 한테 열려, 옛날 같이, 살고~지고
 내~ 마음 색동 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 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 가자 찾~아가

이은상씨의 시, “가고파”는 1932년에 발표되었고, 김동진씨는 이 시의 내용을 너무 좋아하여, 1933년 즉흥적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다.

이 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로 선정되었고, 이곡은 최고의 우수작으로 온국민의 향수를 달래주는, 국민가곡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는 가사가 공산주의를 배타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므로, 금지된 곡이다.

이은상(李殷相)

(1903~1982) 시조작가·사학자. 경상남도 마산 출신
1918년 아버지가 설립한 마산 창신학교고등과를 졸업하고, 1923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수업하다가, 1925~1927년에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부에서 청강하였다.

이충무공 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중근의사 숭모회장, 민족 문화협회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 문화 보호 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작품: 성불사의 밤, 그리워, 옛동산에 올라, 봄치녀, 장안사, 노산 시조집, 민족의 맥박, 조국 강산, 이 충무공 일대기, 기행문 피어린 육 백리 등이 있다. 그의 시조는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과 국토 산하에 대한 예찬, 전통적 동양 정서, 불교적 무상관 등이 얹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김동진(金東振)

(1913년~2009) 작곡가, 평안남도 출신
1936년 숭실 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뒤, 일본 고등음악학교에 유학하여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종신회원이며, 국민회장 모란상, 3.1 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작품: 가고파는 그의 대표작이며, 봄이 오면, 수선화, 산유화, 못잊어, 목련화, 지구름 흘러가는 곳, 등 민족의 서정을 담은 100편의 가곡을 작곡하여 우리나라 가곡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서양 것과 분명히 차별화된 우리 음악을 만드는 그의 작곡철학으로 총 500편의 다양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 특별기고-수필 -

소 리

김 용 연 (67)

살아있는 모든것들은 소리를 낸다. 하루살이나 매미같은 미물에서부터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있는 것은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 귀뚜라미 휘파람새, 종달새, 뻐꾸기, 닭 울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지만 뚜거비, 돼지, 꿩이갈매기 울음소리, 개나 인간들의 싸움소리는 언제 들어도 혐오스럽다.

생명있는 것들만 소리를 내는게 아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는 계곡물, 대숲에 이는 바람, 후두둑 옥수수나 토란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비내리는 부두의 뱃고동산사의 범종,제야의 종소리들은 우리맘을 언제나 순화시켜주지만 천둥번개, 제재소 툼날소리와 엠블런스 싸이렌은 언제나 우리를 심란하게 한다.

주말이면 치슬령 산자락 초옥을 찾는다. 차 소리, 아기울음 저자거리 행상들이 외치는 저자거리에 살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지않는 산골로 간다. 그곳에선 언제나 바람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 뻐국뻐국, 쪄로롱쪄로롱 온갖 산새들이 어우러내는 대자연의 교향곡을 들을수있다.

요즘엔 밤마다 개구리들이 울어댄다. 어린시절 아버지 등에 업혀 밤늦게 아랫마을을 다녀온 일이있다. 수많은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다가도 발자국소리가 들리면 명오게스트라 단원처럼 동시에 똑 그치던 그 소리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들으며 잠이든다.

되돌아보면 지난세월 나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내 유년의 트락엔 언제나 시골 과수원의 까치소리, 워낭소리, 새끼 엄소우는소리, 치르륵치르륵 여치나 홍굴레 날으는소리, 꿀벌 잉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면 뻐뻐나 버들피리를 불고, 가을이면 낙엽밟는소리와 도리깨질소리,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들이추위에 우는 소리, 쌓인 눈무개로 나무가지가 꺾어지는 소리, 정월대보름저녁 달불이야 합성, 땡땡땡 학교종 소리, 오포와 통금 싸이렌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넓은집마당 가설 영화관의 변사의 구수한 육담, 오일장날의 사당패 풍물놀이, 찹쌀떡사려, 해삼이나 대게 사려 겨울 골목을 왜치며 지나가던 권 목소리, 상두꾼들의 구성진 합창과 공동묘지의 여우나 늑대 울음소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불켜진 밤기차의 기적소리, 트럼펫을 앞세워 새벽송을 돌던 크리스마스이브의 캐럴소리와 웃음소리는 지금도 눈을감으면 들려온다. 아홉살무렵 6.25 가 나고

하루에도 수십번 두귀를 막던 젤트기 팽음 들과 포성, “성냥담배 라이타돌”과 “아이스케키”를 외치던 6.25 소년행상들과 피난민촌의 아가들 울음,, 줄줄 따라다니던 동동 구리무장수의 발과 어깨에 달린 북소리, 낡은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던 “바람찬 흥남부두”나 “이별의부산정거장..”

첫 출산일 아내의 비명소리와 아기 울음소리, 세 아이들의 운동회 날의 딱총소리와 졸업식과 결혼식장의축가 노래 소리들도 잊을수가없다.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호랑이 김교장의 기침소리만 나면 모두 숨었다. 이런 시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숨죽이며 살다간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디딜방아와 다듬이 방망이 소리, 청솔가지를 아궁이에 지피면서 몰래 흐느끼시던 울음소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내 가슴 깊은곳에 한으로 흐르고있다.

“씨알의소리” “못살겠다 갈아보자” 새벽종이울렸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의 구호들, 과 최루탄과 물대포소리, “미군장갑차와 광우병과동의 섬뜩한 구호들.

8.15, 6.25, 9.18, 2.28, 4.19, 5.16, 5.28, 6.15를 거치며 들려오던 합성과 통곡소리 들으며.웃기도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며 지나온 긴 지난 세월..그때보다 너무나 많이 편리해 지고 넉넉해 졌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못하고 여전히 심기불편과 질병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의 소리들은 세월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게 없지만 사람들의 소리는 그때보다 많이 변했다. 놀랄만한 학문의 진보가 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원초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맹시대보다 더 나아진게 없다.

나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라고 한 인물이 있다. 그가 외친 소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구세주가 곧 세상에 온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소리가 내속에 좌정한 뒤로 번다한 온갖소리들을 접고 그분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남의 소리를 듣기도하고 내기도 하며 살다가 어느날 타인들의 울음소리 속에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닌가?

나도 문득 사라지기전 하늘로 부터오는 소리를 더 듣기위해 오늘도 산과 물과 바위와 별들이 싱그런 이곳을 찾아 나선다.

<저자, 수필가, 울산 김 소아과 의원 원장>

-시-

늘 푸른 나무

이 상 준(67)

-1-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富)를 갈망하는 위선
보호색으로 몸을 가리우는
벌레 같은 징그러움
내 안에서 크고 있음을 너의 앞에서 고백하는
오늘이 있기에

너의 팔에 안겨 진 나
포근한 안식을 할 수 있구나



-2-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세정(世情)
변화무상한 갈대 같은 인심
바람에 날려 펄럭이는 계절의 옷들
다 벗어두고
늘 푸른 잎새의 가지에서
나도 오늘
하늘을 머금고
동공이 푸른
적나라(赤裸裸)한 새가 된다

앉아서도
한없이 날개를 펼치는 새
구름도 바람도 다 삼키고
하늘아래
태양하나를 이고 활개 치는
원색의 비상을 익히면, 언제나

나의 날개 밑 바람이 되어주는
내 사랑 내 벗이여



년도	성명	회비	장학금	기부금	년도	성명	회비	정학금	기부금	년도	성명	회비	장학금	기부금
49	김 태훈	100	100			유 상호	100	100			이 길부	100	100	
50	지 성해	100	100			강 반	100	5,000 pledge			남 상규	100	100	
	허 규숙	100	100			이 종만	100	100			신 철야	100	100	
	유 춘식	100	100			유 진우	100	100			최 성정	100	100	
51	서 옥	100	100			조 명래	100	100			장 춘식	100		
54	김 연호	100	100			배 익학	100	100			고 충환	100	100	
57	김 규진	100	100			이 석운	100	100			손 용교	100		
	전 성균	100	100			김 재찬	100	100			이 영재	100	100	
59	이 영기	100			64	이 영남	100				최 준혁	100	100	
	강 주안	100				이 장우	100				이 규청	100	100	
	김 재호	100	100			김 성홍	100				이 재철	100	100	
	양 남도		200			강 대명	100	100			정 해진	100	100	
60	이 상국	100	100			이 재수	100	100			정 근영	100	100	
	김 재환	100				오 상완	100	200			박 대선	100	100	
	여 병택	100	100			Mrs. 김경현		100	500		박 정태	100	100	
	남 공원	100	100			이 성수	100	100			김 덕영	100	100	
	강 경훈	100	100			Mrs. 서태준		1,000			권 기호	100	100	500
	여 용연	100	5,000 pledge			송 종규		100			육 정혜	100	100	500
	최 중식	100	100			이 정운	100	100			육 종윤	100	100	
61	김 수생	100	100			김 광환	100	100			김 동운	100	100	
	김 진길	100				강 영창	100				권 석찬	100	100	
	조 홍래	100	100			고 재명	100	100			안 정홍	100	100	
	송 문원	100	100		65	김 수용	100	100			이 정두	100		
	이 만희	100	100			이 수광	100	100		67	김 문양	100	100	
	조 광제	100	100			이 박무	100				임 무웅	100	100	
62	강 차구	100	100			임 청	100	100			허 련	100	100	
	김 태복	100				손 순천	100	100			김 성원	100	100	
	박 희승	100	100			김 영훈	100				육 정자	100	100	
	김 범주	100	100			강 희훈	100	100			이 상준	100	100	100
	이치민	100	100			고 광빈	100	100			강 백현	100		
	정 해관	100	100			김 유사	100				최 임석	100	100	
	박 현동	100				구 자권	100	100			김 광준	100	100	
63	박 로종	100	100			윤 징자	100	100			노 여주	100	100	
	이 영해	100	100			장 문찬	100	100			김 영길	100	100	
	김 경수	100	100			서 상무	100			68	문 종천	100	100	
	임 정규	100	100		66	신 인건	100	100			김 주록	100	100	
	서 규원	100	100			김 기춘	100	100			장 세찬	100	100	
	황 세환	100	100			정 호성	100	100		69	신 기동	100	100	

년도	성명	회비	장학금	기부금	년도	성명	회비	장학금	기부금	년도	성명	회비	장학금	기부금
69	정 윤기	100	100			권 철기	100	100			라 기도	100	100	
	이 청혜	100	100			구 본철	100	3000	2000		권 오갑	100	100	
	서 영수	100	100			배 영천	100	100		72	김 태우	100	100	
	이 재욱	100	100		71	이 봉기	100	100			정 영섭	100	100	
70	정 태진	100	100			이 정무	100	100		82	류 삼열	100		
	정 규용	100	100			이 광백	100	100		90	박 소향	100	100	
	백 성욱	100	100			김 완조	100	100		91	김 경이	100	100	
	정 병하	100	100			라 기도	100	100		93	조 영호	100	100	

김의신 박사가 말하는 암 예방

미국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동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서양인은 피하지방이 되고 동양인은 내장지방으로 쌓인다. 그러니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라.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보리밥·된장·고추장 등이 돌이켜보면 모두 건강식이었다.”

-중략-

“암에도 기적이 있나?” “있다. 암에도 기적이 있다. 지금껏 나는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 정도 봤다. 우리 병원에 서도 모두 포기하고 임종을 위해 호스피스동으로 간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 죽더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검사를 해보니 암이 없어진 건 아니더라. 다만 암이 활동을 멈추고 있더라. 그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또 난소암 4기인 한국인 여성도 있었다. 정상인은 암 수치가 40~60 정도다. 당시 그 여성은 암 수치가 800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점점 떨어졌다. 그러더니 정상치가 됐다. 검사를 해보면 암 덩어리는 그대로였다. 어떤 덩어리는 더 커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껏 18년째 잘 살고 있다.”

●“기적적인 치유를 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 “있다. 겸손이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에게 모든 걸 맡기기도 했다. 그럴 때 뭔가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했다.”

●“독자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게 조언해 달라.” “암의 원인은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유심히 봐야 한다. 가령 아버지가 위암에 걸린 적이 있다든가,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다면 그 암에 대해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담배를 많이 피운 게 원인이라면



본인은 절대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그리고 해당하는 암에 대한 정기 검진도 자주 해야 한다.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암은 예방이 최고다.”

●“그래도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 “나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암에 걸리는 것은 뭔가 시련을 겪어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함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암에 걸린 덕분에 내가 소중한 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그런데 ‘암 걸리게 억울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다. 오히려 암이 더 악화하기 쉽다. 그러니 마음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①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암을 공부하라. 그리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하라.

②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하라. 흰 쌀밥도 마찬가지다. 카레에 담긴 카카민이란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카레를 자주 먹어도 좋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③ 40대가 지나면 몸에서 분해효소도 적게 나온다. 적게 먹어라.

④ 적당한 운동을 하라. 걷는 운동이 좋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데는 종교가 도움이 된다.

-김광준 (67) 제공-

2012 ANNUAL CONVENTION INFORMATION

August 16-19, 2012

QUAIL HOLLOW RESORT & COUNTRY CLUB
11080 CONCORD-HAMBDEN ROAD
PAINESVILLE, OHIO 44077 (NEAR CLEVELAND) near the I-90 & SR 44 SOUTH

The city name may appear as Concord Township. About 45 minutes drive from the Cleveland Hopkins International Airport (CLE)

Tel: 440-497-1100, 800-792-0258

Fax: 440-497-1111

<http://quailhollowresort.com>

Group room rate: **\$99**, Group name: KPNUM or KPNU Medical School
 Cut-off date: Wednesday, July 20, 2012

Quail Hollow Country Club
Pro shop: 440-639-4000.

Quail Hollow Country Club has two 18-hole championship courses; Weiskopf/Morrish Course and Devlin/VonHagge Course, and has different entrance than the hotel if you come directly to the country club

Convention Schedule:

Thursday, August 16, 2012

12:00 PM Registration
 1:15 PM Classmate or Individual Golf Outing
 7:00 PM Dinner, Delegate Meeting

Friday, August 17, 2012

8:00 AM Golf Tournament
 1:30 PM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6:30 PM Reception, Dinner and Entertainment

Saturday, August 18, 2012

8:00 AM CME
 12:00 PM Lunch and Alumni President's Trophy Golf Tournament
 7:00 PM Reception, Banquet, Meeting and Dance

Sunday, August 19, 2008

8:00 AM Farewell Golf Outing

Mailing Address : KPNU MS Alumni Association
 C/O Dr. Kee Do Lah
 39870 Alsace Court
 Solon, OH 44139
 (440) 542-1498 • (440) 542-1637(Fax)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2 Annual Convention Registration Form**

Name: (English) _____ (Korean) _____

Spouse's Name: (English) _____ Class of 19 _____

Address: _____

Street

City

State

Zip

Phone: (Home) _____ (Cell): _____

Email: _____ Golf Handicap : Member () Spouse ()

REGISTRATION FEE:

Member & Guest Spouse
(Please Circle the Choices)

Annual Convention Registration Fee	\$200.00	Waived
Registration Fee for the Spouse of deceased Member		Waived
Thursday Classmate Golf Outing	\$65.00	\$65.00
Thursday Breakfast, Lunch & Dinner	Waived	Waived
Friday Dr. Chang Yul Oh Memorial Tournament	\$75.00	\$75.00
Friday Breakfast, Lunch & Dinner	Waived	Waived
Friday AM Tour for Non-golfers	Waived	Waived
Saturday Alumni President Cup Tournament	\$75.00	\$75.00
Saturday Banquet, Meeting, Music & Dance	\$100.00	\$100.00
Sunday Breakfast & Golf	\$65.00	\$65.00
Please Include:		
2008 Membership Due, if not yet paid	\$100.00	
2008 Scholarship Fund, if not yet paid	\$100.00 or more	\$ _____
Voluntary Donation	\$ _____	
 Total Fees Enclosed	 \$ _____	

* Tour for Non- Golfers is available on Friday and Saturday as needed basis.

** Please note that these fees and hotel room rate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2008 and 2001 annual conventions at Quail Hollow Resort and Country Club.

Payable to KPNU Medical School Alumni

*Convention fees are refundable if notified before August 1, 2012

Please complete and mail this form to:

Dr. Kee Do Lah 39870 Alsace Court, Solon, OH 44139



KPNU MS NA ALUMNI DELEGATE MEETING
May 12, 2012 at Cleveland, Ohio



Officers

President

Bon Chul Koo, M.D. ('70)

President elect

Immediate past President

Jae Cheoll Rhee, M.D. ('66)

Vice President

Young Hwa Lee, M.D. ('65)

Nae Hong Park, M.D. ('66)

Wan Jo Kim, M.D. ('71)

Secretary General

Kee Do Lah, M.D. ('71)

Treasurer

Okap Kwon, M.D. ('71)

Auditors

Soo Yong Kim, M.D. ('65)

Bak Hyun Kang, M.D. ('67)

Historian

Ung Yun Ryo, M.D. ('60)

Committee Chairs

Scholarship

Soo Kwang Lee, M.D. ('65)

Helen Kwon, M.D. ('66)

By-Laws

Charles Shin, M.D. ('66)

Newsletter & Publication

Sang Joon Lee, M.D. ('67)

Membership

Young Chul Kim, M.D. ('67)

Education & Scientific

Jay Wook Lee, M.D. ('69)

Sports

Byung Ha Jung, M.D. ('70)

Jung Moo Rhee, M.D. ('71)

Finance & Investment

Byung Rak Chung, M.D. ('61)

Sang Kyoon Kim, M.D. ('70)

Auxiliary

Mrs. Bon Chul Koo

Mrs. Kee Do Lah

Mrs. Jay D Ha

Mrs. Ja Kwon Koo

Mrs. Dong Youn Kim

Mrs. Nam Jae Cho

Mrs. Young Jai Lee

Mrs. Jay Wook Lee

Mrs. Byung Ha Jung

Mrs. Okap Kwon

Mrs. Young Chul Kim

Mrs. Jung Moo Rhee

Mrs. Sang Joon Lee